

2014 - 11월호

KB 중국금융시장정보



이슈진단

- 위안화 국제화 / 세계 2위의 무역금융통화로 부상한 위안화와 위안화 역외센터 위상 제고 방안 (이창영,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 중국 증시 투자 /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에 대한 평가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선임연구원)

시장점검

- 외환시장 / 위안화 對달러 환율, 연초대비 절하폭 축소 지속
- 부동산시장 / 10월, 중국 주택가격 23개월만에 전년동기대비 하락

금융산업

- 은행 / 3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 통화정책 연속성 유지 강조
- 증시 / 17일, 후강통(沪港通, 홍콩-상하이 간 개인 증시 투자 허용 제도) 개시

◇ 연구보고서 요약 / 중국공상은행 E-ICBC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지난호 정보 (2013-5월호~2014-10월호)

세계 2위의 무역금융통화로 부상한 위안화와 위안화 역외센터 위상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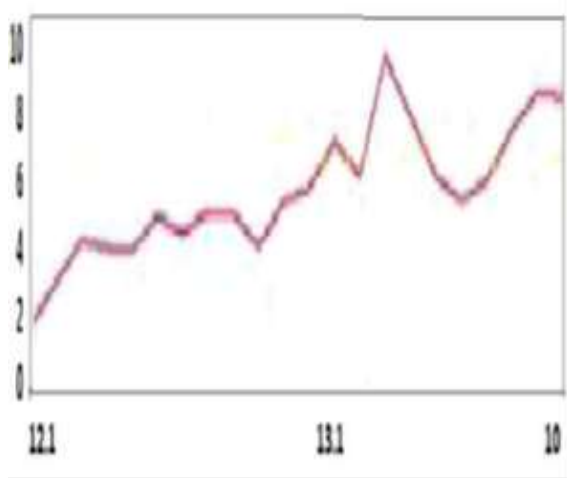
이창영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위안화, 세계2위의 무역금융통화로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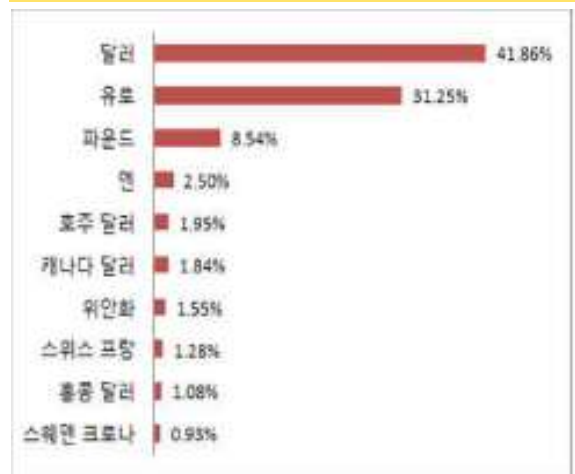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 따르면 위안화는 전통적 무역금융(신용장+추심) 통화에서 유로화를 제치고 미달러화에 이어 세계 제2위 통화로 부상하였다고 한다. 위안화가 세계 무역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1월 1.89%에서 2013.10월 8.66%로 급등한 반면 유로화는 7.87%에서 6.64%로 하락했다. 위안화 무역금융은 중국(59%), 홍콩(21%), 싱가포르(12%), 독일(2%), 호주(2%)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안화는 글로벌 무역결제 사용 비중에서도 2014년 6월 말 기준 1.55%로 7위를 차지하면서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와 더불어 주요 5대 통화 지위를 확고히 구축했다. 중국의 수출입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위안화 무역결제는 성장할 여지가 더욱 큰 상황이다.

[그림1] 글로벌 무역금융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SWIFT

[그림2] 글로벌 무역결제 통화별 비중



자료: SWIFT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FTZ) 등을 통한 중국의 자본자유화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 FTZ는 위안화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다국적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위안화 환전 한도 (1인당 2만위안)도 조만간 완화 또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역외 위안화 시장의 위안화 자산운용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안화 자금풀(pool)이 확대될 것이다.

싱가폴의 성전은행(星展銀行, DBS)에 따르면 홍콩 내 서베이 대상기업의 약 40%가 향후 5년 내 해당기업의 전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Standard Chartered은행은 2015년 이전에 국경간위안화결제시스템(CIPS)이 완료되고 중국의 수입거래를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중국 수출입 거래의 위안화 결제비중이 28%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 현황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고,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은 양국간 자국통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간 금융·통화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한국은 중국 외환시장에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한국에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RQFII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를 감안 적절한 시점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한국 당국·금융기관의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를 환영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 등을 합의하였고 이는 한국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표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 현황

구분	인프라	수요	공급	구축여부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			×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		○	○
RQFII 획득		○		○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		×
한-중 통화스왑자금 활용			○	○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4.7.3)

위안화 역외센터의 국가 간 비교

현재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가 압도적인 가운데, 런던이 제2 위안화 역외센터로 주목받고 있으나, 싱가포르, 대만 등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지역에 RQFII 한도를 신규 부여하여 역외 위안화 허브의 잠재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SG 위안화 글로벌화 지수(RGI)¹에는 기존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2013년 7월부터 대만을 신규로 포함시키고 있다.

[표2] SG 은행 RGI에 포함된 4대 위안화 역외시장 비교 (단위: 억위안)

구분	홍콩	런던	싱가폴	대만	한국
설립연도	2004	2011	2013	2013	2014 기반구축
위상 및 목표	글로벌 허브	서구의 허브	아세안지역 위안화 수요충족	양안무역, 금융거래취급	대만과 유사
청산은행	중국은행 (BOC)	건설은행(CCB)	공상은행 (ICBC)	중국은행 (BOC)	교통은행 (BOCOM)
역외위안화채권 시장	딤섬본드 (dimsum Bond)	별칭 없음	라이온시티본드	포모사본드	(김치본드)
위안화예금잔액 (시점)	7,816 (‘13.10)	145 (‘13.06)	1,720 (‘13.10)	1,230 (‘13.10)	100 (‘13.10)
통화스왑규모	4,000	2,000	3,000		3,600
RQFII 한도	2,700	800	500	1,000	800

주: 한국은 거주자외화예금 기준

자료: 홍콩입법부(2013.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중국금융연구원

¹ Renminbi Globalisation Index. 홍콩, 런던, 싱가포르, 대만 등 세계 4대 역외 위안화 시장을 대상으로 위안화 채권 발행액, 예금규모, 무역결제 및 기타 국제 결제, 외환거래 등 위안화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측정하여 위안화 국제화 정도를 지수화(국별 비중 : 홍콩 74.7%, 싱가포르 11.5%, 런던 10.3%, 대만 3.5%)

위안화 역외센터 위상 제고를 위한 제언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강화와 정책의지를 감안했을 때 위안화 국제화는 추세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HSBC는 2015년까지 위안화가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결제통화로 등극하고, 중국 전체 무역결제액의 30% 이상이 위안화로 결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중국 자본시장 개방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개방될 것”이라며 11.17일 실시될 후강통과 함께 △위안화적격국내기관투자자(RQDII) 시범 시행 △적격국내개인투자자(QDRI) 제도 마련 △중국 본토기업의 해외 위안화 표시 주식 발행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²

이와 같은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과 자본시장 개방 및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은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위안화 국제화는 단계적으로 진전될 전망이지만 각국의 위안화 시장 선점 노력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한중 정책당국 간, 금융기관 간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정부의 당면과제인 점을 인식하고, 금번 FTA협상 타결과 역외 위안화센터 구축을 계기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특혜조건을 중국 정부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센터 기능이 확고한 상태에서 우리의 위안화 역외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혜조건을 활용하여 우리의 역외센터 기능을 차별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차별화하지 않을 경우 홍콩의 역외센터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머물다가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그 기능은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존 FTA 협상기준을 초과하는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² 아주경제, 2014년 11월 14일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에 대한 평가³

박석중 하이투자증권 선임연구원



□ 최근 중국 증시 반등의 주된 요인은 수급 요인에 의한 것

- 중국 주식시장의 반등 요인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수급이며, 수급의 확대 기대는 개인의 자산배분 효과, 기관 및 외국인 수급 유입과 IPO 확대 이슈가 끝나는 2~3년 후가 될 것
- 향후 1~2년은 종목장, 향후 2~3년은 시장을 사야 하는 전략이 필요

□ 중국 개인 투자자 Asset allocation의 변화

- 중국 그림자금융의 고수익은 그림자금융 잔액이 본토 A주 시장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확대(주식시장 자금유입 감소, 그림자금융 자금유입 확대)
-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그림자 금융의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개인 금융 자산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실제로 최근의 본토 증시 반등은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닌 WMP 수익률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수급효과에 의한 작용이 큼

□ 작은 곳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 주요 경제지표와 주식시장의 개별 업종 상대 증가율을 비교하면 2013년을 기점으로 신경제 영역이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중국 경제성장률과 상하이종합지수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지수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메인보드인 상하이와 선전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컨보드인 ChiNext와 GEM 시장은 연초대비 121%가 넘는 상승세가 관찰됨

³ 상기 내용은 지난 10월 23일(목) 경영연구소 주최 “제4회 KB중국CoP”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중국금융연구센터 홈페이지(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중국금융연구센터→KB중국금융포럼)를 참조하십시오.

- 상하이종합지수를 중국 주식시장 전체의 변화로 일반화해서는 안되며 작은 곳에서 큰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IPO 확대에 의한 수급 불균형과 금융발 불안감은 상존

- 현재 IPO 신청 및 대기 중인 기업은 3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대형 국유 기업 및 금융업체의 IPO 대기물량도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음
- 과거 본토 증시와 신규 IPO 물량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보면 IPO 진행시 본토 증시의 조정이 반복적으로 진행
- 과잉 유동성과 부채 및 부동산 버블 문제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 현재 증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3%에 달하고 있어 금융과 부동산에서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주식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음

□ 농업, IT, 소비, 레저, 자동차 및 환경 등의 유망 분야에 주목할 필요

농업	중국의 농지비중은 전체 토지 면적의 6%에 불과. 추가 경작지 확대가 제한적이라면 오염토지의 정화작업과 농업기술 및 관개시설 확충이 필연적 * 농기계, 비료, BIO, 토지정화, 농민소비(필수소비재), SOC투자(관개시설) 등이 유망
IT	중국의 스마트폰 및 가전 보급률은 글로벌 평균에 수렴. 기술수준 향상 및 IT 인프라 변화로 하드웨어 투자의 Big Cycle이 지속될 가능성 * IT 중간재(부품, 소재, 장비), 4G 및 IT 인프라 업종 등이 유망
소비	중국 소비 플랫폼의 변화는 소비의 구조와 품목별 변화를 가속화. 중국 소비의 다음 변화는 인터넷 쇼핑의 확대에 있음 * 중저가 상품, 전자상거래 인프라, 물류, 콘텐츠(미디어), 해외 직구 등이 유망
레저	다음 소비패턴은 먹고, 놀고, 마시는 것으로 시선이 이동할 시점. 중국의 유흥산업 중 여행, 영화, 문화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영화, 미디어 콘텐츠, 여행, 카지노, 숙박 등이 유망
자동차	소득확대에 의한 자동차 수요 확대는 여전히 진행 중. 특히 보급률이 낮아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제2의 Motorization 진행 예상 * 완성차, 부품, 물류(상용), 전기차 등이 유망
환경	신환경 에너지, 원자력, 도시가스 등의 비중이 확대될 것 * 원자력, 도시가스 인프라, 환경 용품, 탈황설비, 신환경 에너지 등이 유망

위안화 對달러 환율, 연초대비 절하폭 축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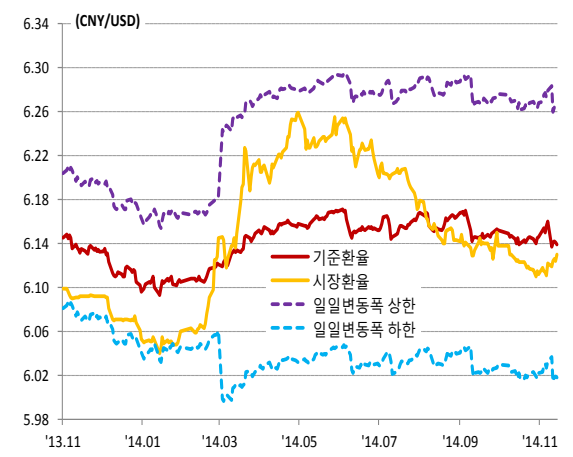
□ 인민은행 공시 위안화 對달러 기준 환율 연초대비 절하폭 축소 지속

- 인민은행 공시 위안화 對달러 기준환율은 11월 14일 현재 달러당 6.139 위안으로 연초(6.099 위안) 대비 0.65% 상승(전월동기 0.78% 상승)
-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은 달러당 6.130 위안으로 연초(6.050위안)대비 1.30% 상승하며 전월동기(1.32% 상승)보다 상승폭 소폭 축소
- 10월 위안화 對달러 기준환율은 6.13~ 6.15위안 사이에서 안정적인 변동을 지속하였으나, 시장환율은 월말 6.111위안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6.13 위안 수준까지 상승

□ 향후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나 강세 속도는 제한적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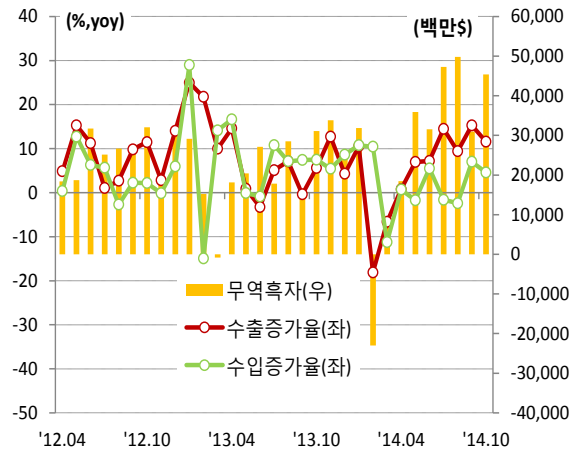
- 현재 무역수지 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안화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통화정책 차이에 따라 높은 금리대를 유지하며 중국이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여 위안화 강세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 우세
- 선진국들이 자국경제를 위해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구조적으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기에 선불리 완화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
- 그러나 중국은 관리 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기에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3] 위안화 對달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CEIC

[그림4] 월별 중국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흑자 규모



자료: CEIC

10월, 중국 주택가격 23개월만에 전년동기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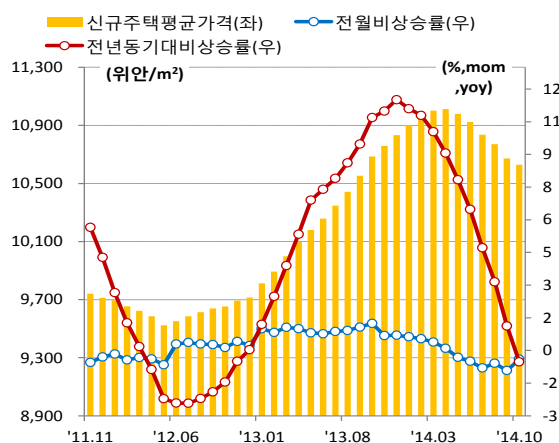
□ 10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가격 23개월만에 전년동기대비 하락

- 9월, 중국 100개 도시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m^2 당 10,629 위안으로 전월 동기대비 0.52% 하락하여 2012년 11월 이래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 동기대비 하락세 시현
- 전월대비 가격은 0.40% 하락하여 전월(-0.92%)보다는 하락폭이 축소
- 도시 규모별 주택가격은 3선도시⁴(9월:-0.52%→10월:-0.66%)를 제외한 1선도시(9월:-0.96%→10월:-0.16%), 2선도시(9월:-1.02%→10월:-0.84%), 4선도시(9월:-0.91%→10월:-0.74%)가 전월보다 하락폭 축소

□ 가격 하락폭의 축소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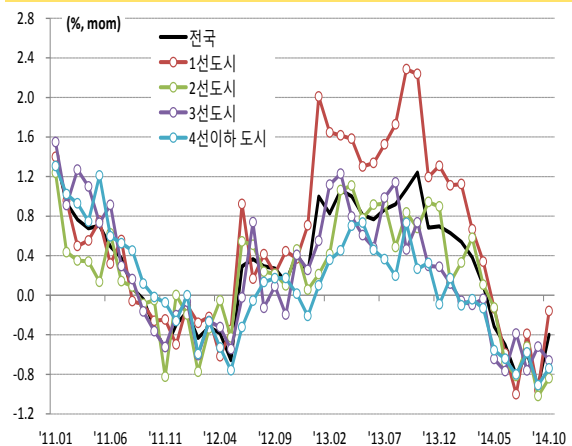
- 지방정부에 이어 중앙정부의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 조치가 점차 효과를 내며 가격 하락세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 지난 5월 인민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금리 규제를 완화하였고, 10월에는 2주택자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하향 조정 및 금리 우대 방침을 밝힘
- 그러나,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 재고 증가와 잠재 소비계층의 관망세 유지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급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전망

[그림5] 중국 100개도시 신규주택가격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그림6] 중국 도시규모별 전월대비 주택가격 변화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⁴ 중국 1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2선 도시는 5개 1선 도시 외에 GDP 2,000억 위안, 일인당 GDP 1.4만 위안, 상주 인구 100만 명, 면적 100km², 주택판매가격 3,000위안/m² 이상인 도시; 3선 이하 도시는 상기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를 지칭

3분기 인민은행 통화정책보고서, 통화정책 연속성 유지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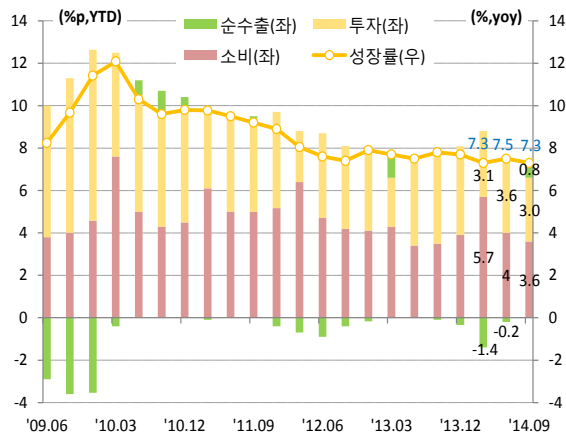
□ 3분기,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는 안정

- 금년 3분기 중국 경제는 소비의 안정적 증가 및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2014년 분기별 성장률: 1Q 7.3%→2Q 7.5%→3Q 7.3%)
- 그러나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차이로 글로벌 자본이동이 확대될 것이며, 중국의 부채·투자 의존형 성장의 문제가 여전한 데다 내생적 성장동력이 견고하지 못한 점 등을 잠재 리스크로 지적
-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 하락세 지속,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 향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경제구조조정 강화 및 생산과잉 심화 등으로 물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향후에도 선택적 긴축 완화 등 현 정책 기조를 지속하여 정책 연속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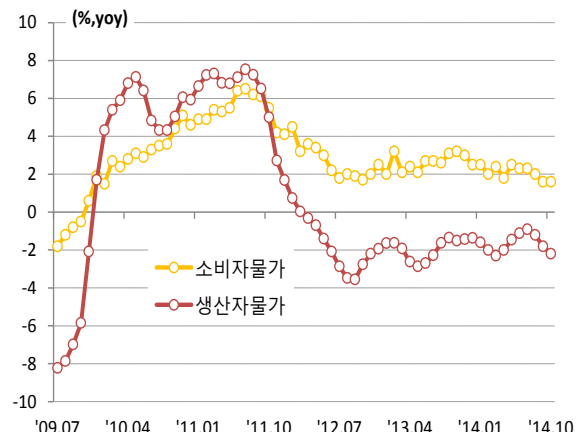
- 다양한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는 한편 선별적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신용공급 구조를 개선
- 금융혁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은행간시장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강조

[그림7] M2 증가율 및 연간역제목표



자료: CEIC

[그림8] CPI 및 PPI 증가율



자료: CEIC

17일, 후강통(홍콩-상하이 간 개인 증시 투자 허용 제도) 개시

□ 상하이-홍콩 증시간 상호주식투자를 위한 후강통(沪港通) 17일 개시

- 지금까지 국내에서 중국 B주를 제외한 본토 증시(상하이 A주)에 투자하려면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나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받아야 했고, 개인투자자는 이들 기관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가 가능
- 하지만 금번 후강통 시행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홍콩 거래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 등을 제외한 총 568개 종목의 상하이 A주를 거래할 수 있게 됨
- 상하이 거래소 거래시간은 오전장(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휴장(12시 30분~오후 2시), 오후장(오후 2시 ~4시)로 나뉘지며 홍콩과 상하이 증시 중 한 곳이라도 개장하지 않으면 거래할 수가 없음
- 거래 통화가 위안화인 만큼 환율변동에 따라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부담(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로 22%,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며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

□ 후강통 출범에 따른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지속돼 국내에 유입됐던 외국인 자금이 후강통으로 인해 중국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우려 증대
- 그러나 후강통은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정도로 총 투자한도가 중국 본토 및 홍콩 주식시장의 1.2%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란 평가

[표 3] 후강통을 통한 중국 주식 거래 시 유의할 점

거래시간	오전장 10시 30분~12시 30분, 오후장 2시~4시
주문단위	매수시 100주 단위, 매도시 단주매매 가능
세금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4%, 중국 현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는 현재 미정
주문한도	전체 한도 3,000억 위안, 일일 한도 130억 위안
휴일거래	상하이, 홍콩 증시 중 한 곳이라도 휴장이면 휴일 전일부터 휴일 익일까지 거래 불가
기타	위안화 거래서 환변동 유의, 증권사별 거래수수료 확인 필요

중국공상은행 E-ICBC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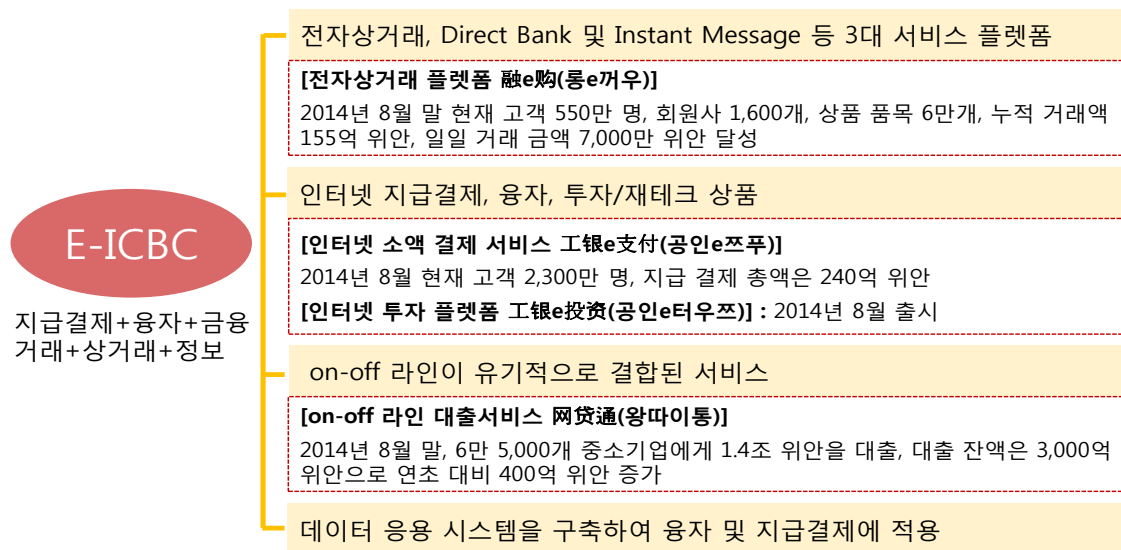
□ E-ICBC 도입 배경

- 전자상거래, SNS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한 ICT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며 금융업 진출 교두보 확보
- 이들의 중국 내 위상이 증대되면서 송금, 대출, 투자중개, 자산관리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확장했으며, 특정분야에서는 기존 금융기관을 추월
- 중국 은행업의 예대마진 축소로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은행들이 同 영역으로 진출을 확대

□ E-ICBC의 주요 내용

- E-ICBC는 지급결제, 융자, 금융거래, 상거래, 정보 등 5개 기능이 통합된 서비스 체계
- ①전자상거래, Direct Bank 및 Instant Message 등 3대 서비스 플랫폼 ② 인터넷에서 지급결제, 융자, 투자/재테크 상품 ③on-off 라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서비스 ④빅데이터를 융자 및 지급결제에 적용 등 4개 범주로 구성

[그림 9] E-ICBC의 구조 및 내용



⁵ 자세한 내용은 KB경영연구소 보고서→이슈 및 연구보고서 「중국공상은행 E-ICBC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CEO MEMO 2014-29호)」를 참조하십시오.

- 融e购(룽에꺼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网贷通(왕따이통: on/off 라인 결합된 대출서비스), 工银e支付(공인에즈푸: 인터넷 소액결제 서비스), 工银e投资(공인에터우즈: 개인 인터넷 금융상품 투자 플랫폼) 등의 상품 출시 운영 중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상업은행을 비롯 다수의 시중 상업은행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
- 중국 상업은행의 전자 상거래 진출 등 영업 확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향후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법규와 리스크 감독 관리 규정 완비 등이 과제로 남아 있음
- 국내에서도 ‘뱅크월렛 카카오’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인해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이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이동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어 금융기관 주도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증대
- 저금리 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국내 은행들도 고객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그림 10] 현재 영업중인 중국 상업은행 개설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



자료: www.enorth.com.cn

2013-05월호 (창간호)

-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안화 사용 큰 폭으로 증가
- 차이나머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급증
- 중국 그림자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증대
- 부동산 가격 반등으로 경기부양 어려움 가중
-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대

2013-12월호

- 제조업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 심화
- 과열 억제 조치에 힘입어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 연말 앞두고 유동성 경색 현상 재현 우려 증대
- 무역흑자 및 해외자금 유입 급증 등으로 위안화 절상 가속화
- 위안화, 유로화 제치고 세계 2위 무역금융 통화 부상

2014-01월호

- 중국 지방정부 부채,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일부 리스크 잠재
- 토지 공급 증가 등으로 2014년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전망
- 연말 자금시장 단기 금리 급등으로 자금경색 재현
- 2014년, 위안화 양방향 변동성 확대되며 절상 추세 지속 전망
- 광둥성, 광저우-홍콩-마카오 잇는 자유무역지역 설립 계획

2014-02월호

- 공상은행, 판매대행 신탁상품 상환보증 거절로 금융시장 우려 확대
-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 소폭 둔화
- 인민은행, 온건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 유지 재확인
- 연초 위안화 對달러화 가치, 절하 추세로 반전
- 위안화, 글로벌 결제 통화 순위 8위로 급상승

2014-03월호

- 경기하방 리스크 방지를 위한 부양조치 시행 가능성 증대
-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유지 전망
- 상업은행 유동성 리스크 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정 도입
- 위안화 일일 변동폭 $\pm 1\% \rightarrow \pm 2\%$ 로 확대
- 위안화 글로벌 결제 통화 순위, 스위스 프랑 제치고 7위로 상승

2014-04월호

- 위안화 절하로 TRF 매입 중국 기업 손실 확대 우려
- 토지판매량 급감 등으로 주택가격 둔화 지속
- 중국 국무원, 지방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 발표
- 위안화 對달러 가치 절하 추세 지속
- 호주, 지난 1년간 위안화 결제 규모 대폭 확대

2014-05월호

- 중국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성장률 하락폭 확대 우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단했던 IPO를 재개
-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 미세조정 언급
- 경상수지 호전 등으로 향후 위안화 절하폭 제한 전망
- 싱가포르, 위안화 역외 시장 지위 상승

2014-06월호

- 유동성 경색 발생 1년 경과, 재발 가능성 감소
- 주택가격 감소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 중국인민은행, 기준을 인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위안화 對달러화 가치 절하폭 전월대비 축소
- 중국 VC & PE 투자시장의 트렌드와 시사점

2014-07월호

- 위안화 국제화 어디까지 왔나?
- 反부패 캠페인 강화로 투자 위축 우려
- 위안화 對달러 가치 절하폭 전월대비 축소 지속
- 위안화, 중국(홍콩)과의 거래에서 제2의 결제 통화로 부상
- 일부 지방정부, 주택구매 활성화 조치 시행
- 申은감위, 예대비율 산정 기준 완화

2014-08월호

- 중국 상반기 경제 현황과 하반기 전망
- 한국 위안화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시장환율 강세 반전
- 중국 주택가격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폭 확대
- 중국인민은행, 하반기에도 선택적 긴축완화 지속 전망
- 상하이-홍콩간 주식 상호투자 개시 임박

2014-09월호

-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증시 투자 기회
- 위안화 對달러 환율 소폭 상승, 전월에 이어 상승폭 축소
- 중국 주택가격 4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
- 2014년 상반기 중국 상업은행 부실대출 규모·비율 동반 상승
- 최근 중국 증시 강세장 전환 기대 고조

2014-10월호

- 최근 대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위안화 對달러 환율, 박스권 등락 지속
- 9월, 중국 주택가격 전월대비 하락폭 확대
- 상하이 FTZ 內 외자은행 진출 활발
-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개시

※ KB중국금융시장정보 2013-06월호~11월호는 www.kbfg.com/kbresea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중국금융연구센터

<http://www.kbfng.com/kbresearch>

연구위원 이정진, jungjin.lee@kbfng.com

발행인 윤웅원

편집인 조경엽

발행처 KB금융그룹

서울 특별시 남대문로 2가 9-1 KB국민은행빌딩 5~7층

대표전화 02-2073-7114

발행일 2014년 11월 17일